2022. 06. 02(목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2년 6월 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다시뛰는 공정도시 서울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

기획조정국장	김종선	719-6089
모두의학교팀장	이상훈	852-7297
담 당 자	김세희	852-7294
관련홈페이지 (메뉴)	http://slei.seoul.kr/program/moduSchool/apply.do 상단 '프로그램>모두의학교' → 좌측 '프로그램신청'	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 : 4쪽

"연극, 수어 등 배움 버킷리스트 이뤄볼까?"…서울시민 '모두의학교' 여름학기 시작

-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'모두의학교' 여름학기 23개 프로젝트 6월 13일부터 열려
- 시민이 제안한 '수어 벽화 그리기', 'MBTI로 세대 간 소통' 등 이색 배움 활동 눈길
- '팝페라 공연'(7.16.), '나의 자서전 만들기'(8.20.) 다채로운 행사 운영
- 6월 2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‥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

□ 올해 여름,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'배움 버킷리스트'를 이뤄볼 수 있는 기회가 '모두의학교(금천구)'에 마련된다. 수어, 연극 등 시민들이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'모두의학교' 여름학기가 시작된다.

□ 이를 위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(원장 김주명)은 6월 2일부터 여름학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'모두의학교' 여름학기는 '배움'을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전 세대가 함께하는 경험 중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.

○ 모두의학교(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)는 시민이 학습의 수혜자에서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혁신 평생학습센터다.

○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은 모두의학교는 올 한 해 '모두다움'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각 학기별 ▲ 비움(봄) ▲ 배움(여름) ▲ 채움(가을) ▲ 나눔(겨울)의 의미를 담은 서로배움-새로배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.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웃과 가족, 서로 간의 유대와 관계가 중요한 시대에 모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
□ **본격적인 여름학기는 6월 13일 ~ 오는 8월까지 이뤄지며, 총 23가지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하다. 서울 시민 누구나 '배움 버킷리스트를 통해' 함께 얻고 싶은 경험과 평소 배우고 싶은 활동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. 배움 버킷리스트는 모두의학교 현장 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(slei.seoul.kr)에서 작성 가능하다.**

□ **지난 봄학기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「수어와 예술 : 말하는 벽화」는 5주간 모두의학교 인근의 낙후된 골목에 수어로 된 벽화를 함께 그려나갈 계획이다. 수어와 농문화를 알아보고 손의 언어로 교감하는 법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. 벽화를 남기며 지역 환경 개선과 함께 더 많은 시민과 수어의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**

○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20대 시민은 "평소 수어에 관심이 있어 유튜브에서 노래, 단어 만들기 영상을 즐겨 보는데, 다 같이 일상 수어를 배우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를 활용한 활동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좋겠다."고 제안했다.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시민의 버킷리스트를 반영해 수어를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더 많은 시민들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활동 프로젝트를 마련했다.

□ **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. MZ세대**

의 소통 트렌드인 'MBTI'를 통해 중장년 세대와 함께하는 「MBTI를 통한 거리 줄이기 : 나, 너, 그리고 우리」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. 또한 「청·포·도 극장 : 청년, 오포시대에도(道)?!」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, 인간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제안이 반영됐다.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토론연극, 즉흥공감극장 등 연극 기반의 예술 활동을 함께 하며 N개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도 갖는다.

□ 아울러 시민이 직접 배움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'시민 커뮤니티'가 지속 운영된다.

○ 이번 여름학기에는 중·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신체 공간감과 관계 인식을 경험하는 〈당신의 여름을 수집하세요〉(여름수집 연극반) 프로젝트가 진행된다.

○ 고조리서를 기반으로 한 요리를 연구하는 시민 커뮤니티(한식하기 좋은 날)의 〈복 중에 초복〉은 초복을 맞아 무더위 보양 음식을 시민과 나누며 건강과 공유의 가치를 나누는 행사를 개최한다.

□ 이외에도 모두의학교에선 다채로운 여름학기 문화행사도 만날 수 있다. 오는 7월 16일에는 그룹 '퀸스틀러'의 팝페라 공연이 '여러가지홀'에서 열리며, 8월 20일에는 나의 이야기로 자서전을 만들어주는 모두의책방 행사가 준비된다. '모두의학교' 공간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.

□ 오는 6월 2일(목)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'모두의학교' 여름학기 접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(slei.seoul.kr)나 '모두의학교'에 방문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. 접수 및 각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※ 붙임 : 1. 모두의학교 여름학기 참여자 모집 배너 1부

2. 모두의학교 봄 학기 현장 사진 2부. 끝.

붙임1 모두의학교 여름학기 참여자 모집 배너



붙임2 모두의학교 봄학기 현장 사진



(가정의 달 행사) 가족 단위 프로젝트 현장 사진



(가정의 달 행사) 재즈 공연 현장 사진